

삶에는 정답이 없다

삶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.

삶에서의 그 어떤 결정이라도 심지어 참으로 잘한 결정이거나,
너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, 정답이 될 수 있고, 오답이 될 수 있는 거지요.
참이 될 수도 있고,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

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.
정답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,
모두가 어느 정도 오답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.
지나온 삶을 돌이켜 후회를 한다는 것은
지난 삶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정답이 아니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.
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
지금 이 자리가 정확히 내 자리가 맞습니다.

결혼은 누구와 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것이며,
대학을 어디를 갈까에 무슨 정답이 있겠고,
어느 직장에 취직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
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, 그때 그 대학에 입학했더라면,
그때 또 그때... 한없이 삶의 오답을 찾아내려 하지 마세요.
정답, 오답 하고 나누는 것이 그 분별이 괴로움을 몰고 오는 것이지
우리 삶에는 그런 구분이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.

